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21세기全民학습의 대전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2 면 에 서 계 속

연설자는 우리 당의 전면과학기술인 제화방침을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흑심한 강추위와 무더위속에서도 낮과 밤이 다르없는 결사전을 벌리며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방대한 자료기지를 성과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내각과 성, 중앙기관, 령관 단위 일군들, 평양시안의 인민들도 어머니당에 대한 충정심을 안고 건설에 탐과 지성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말하였다.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찾아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방대한 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낸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 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한 새해의 총진군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는 당의 의도를 심장 깊이 새겨안고 세계를 앞서나갈 비상한 각오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 또 배우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인민군인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며 모든 부

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의 용마를 타고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전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이 품을 들어 마련해준 모든 시설물들을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여全民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을 일떠세운 당의 평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위대한 당의 평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과학기술로 강성변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장에는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시고 과학으로 인민의 탁원을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충정의 마음이 새차게 굽어졌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레프를 끊으시

순간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과학기술전당이 우뚝 솟은 대동강만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였다.

준공식은 《행복의 래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의 내부를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 구현된全民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라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진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과학기술전당운영을 잘하여全民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과학부문에서는 과학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자, 연구사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적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율을 높이는것과 함께 과학농사, 과학축산의 불길을 새차게 지퍼올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교육부문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자, 교육자, 기술자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증시사상과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며 과학탐구의 나래,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세계를 향해 파감히 나아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